제6차 미술작품심의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◆ 일　시 : 2015. 4. 16(목) 14:00~16:30
◆ 장　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◆ 참　석 : 강수미, 김성복, 박소희, 박태욱,
　　이영수, 임상빈, 정현, 홍순모, 황인철
◆ 안　건 : 미술작품 6건 11작품(조각6, 사진1, 부조3, 회화1)
　　〔재심 1건, 위치변경 1건〕
◆ 결　과 : 승인 7작품, 재심 4작품

□ 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 (○○○ 교수)

○○○ : 2015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회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9명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○○○ : 환경조각인 경우 보존성이 중요합니다.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 후 채점하는 게 좋겠습니다.

○○○ : 각자 전공영역에서 논쟁거리가 많습니다. 공론될 대상만 논의하는게 좋습니다. 스크린하는 게 좋습니다.

○○○ : 가채점은 문제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쭉 보고 문제점 체크 후 스크린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바로하면 문제점이

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.

위원장 : 토론먼저하면 난상토론이 될 수 있고, 주관적으로 채점 후 (가채점후) 토론하면 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긍정적, 부정적의견이 강하면 다른 분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○○○ :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

위원장 : 거수로 하시죠. 1안이 많습니다. 20분 정도 검토하고 하시죠.

(각자 검토)

위원장 : 북창동 첫 번째 작품 보시죠.

도면을 보세요. 사진 작품 LED 패널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전체 이미지가 LED 발광을 하는거죠. 선에서만 빛이 나는 건가요.

위원장: 저도 좀 헷갈립니다.

○○○ :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

위원장 : LED 패널이 있네요.

○○○ : 별도의 공간이니 공간자체를 위해 설치한 거라 별문제 없습니다.

○○○ : 조명은 안하는 게 낫습니다. 빛 자체가 조명이 됩니다.

○○○ : 통과하면 건의를 하죠. 공간을 살리고 싶어서 조명을 한 거 같습니다.

위원장 : 이의 없고, 각자 판단하시죠. 2번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좋은거 같아요. 순수 작품인거 같습니다.

○○○ : 모던합니다. 근데 작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오브제가 얇아서 밟으면 찌그러집니다. 보존성 때문에 두께가 다소 얇고

실외 설치이기 때문에..(실내 설치입니다.) 아 실내인가요? 그러면 괜찮습니다.

위원장 : 3번 작품으로 넘어가죠.

○○○ :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작가의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그 작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

○○○ : 그 작가가 맞는 거 같습니다.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.

○○○ : 그 개념하고 맞습니다.

○○○ : 괜찮은 작품입니다. 스텐, 공장에서 한거 보다 훨씬 낫습니다

위원장 : 4번 작품을 보죠.

○○○ : 오래전부터 끌고 왔습니다. 스텐으로 하는 것은 첨 봤습니다.

○○○ :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.

○○○ : 이런 작품 스타일은 한 사람 뿐입니다.

위원장 : 다른 의견 없으시면, 5번 작품 보죠.

○○○ : 작품 좋습니다. 가격이 착하고 작업이 좋습니다.

○○○ : 누가 기획했는지 잘했습니다.

○○○ : 다른 때보다 작품수준이 좋습니다. 벽에 붙어 있으니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날카로운 부분 등에 부딪힐 염려가 살짝 있습니다.

○○○ : 호텔이라 아이들은 없고, 어른이 많고, 앉을 수 없게 비스듬히 해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

위원장 : 6번 작품보죠.

(아무 의견 없음..) 그럼 호텔건은 다 정리됐습니다.

위원장 : 마곡역 2번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원형제작비가 2천만원이고, 작가창작비가 4천입니다. 적정금

액인지요. 설치금액란에 있습니다. 총 제작비가 2억 3천인데...작가 창작비가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

○○○ : 이거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. 원형제작비가 2천이라는 거는.. 아 이건 그거네요. 모형원형제작비는 이건 다른 거네요. 예를 들면 주물을 위한 흙작업, 스티로폴 작업등을 한 거 같은데요.

○○○ : 틀 작업이죠. 54백은 스텐레스 재료비고요.

○○○ : 한 작업만 1프로 작업인거 같습니다. 창작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

위원장 : 시에서 금액 산정할때 매뉴얼이 있나요? 작가 창작비등.

담 당 : 공식적 공개자료는 없고, 내부자료는 있습니다.

○○○ : 매뉴얼대로 하면 회화작업을 하는 분은 불리합니다.

○○○ : 창작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하는 거죠.

위원장 : 작가별로 레벨이 다른데, 틀에 맞추는 거도 이상합니다. 일반 공모시 시내 설치하거나, 이순신동상 등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. 미술작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.

○○○ : 스텐 주물을 뜨는 건가요?

○○○ : 완전한 주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.

○○○ : 작품이 곡선의 흐름을 타서 환상적인 느낌이지만, 개인적으로는 곡선이 너무 화려하고, 동그라미 원을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, 아래에도 위에도 있고 바르듯이 너무 정신이 없는 느낌입니다. 여기 설치장소가 공간이 한가운데인데 옆쪽은 너무 형상이 없고,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. 너무 동그라미를 남발했습니다.

○○○ : 심의하는게 장식물심의가 아니라 미술작품 심의입니다.

○○○ : 그러면 더욱더 그렇습니다.

○○○ : 이 작품은 모던하고, 새롭다는 느낌이 있어 활기를 느낍니다. 선생님말씀처럼 원은 많지만, 위의 원들을 조금 절제를 하고 밑에를 없앤다든가 ..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. 밑에 공들을 제거해도 주제와 컨셉이 맞는 것 같습니다.

○○○ : 나중에 보고 조건부로 넣어도 될 거 같습니다.

위원장 :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의 유의사항에 작가창작비가 20%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.

위원장 : 3번 작품보죠.

○○○ : 아파트 주거환경인데, 작품은 아파트 단지내 작품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너무 차게 보입니다.

○○○ : 스텐이 반사가 돼서 큰 문제가 됩니다. 조형적인 게 좀 그렇습니다. 발랄한 느낌이 부족합니다.

○○○ : 생동감이 있고 해야 하는데, 발랄하고요.

○○○ : 가격도 순하고, 조형적으로도 탄탄하고,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. 긍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

○○○ : 각도가 꺾여 있어서 잔디, 하늘이 비추고 해서 좋을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: 사람들이 집으로 반사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.

○○○ : 눈도 부시고요.

○○○ : 각도가 있어서 민원 100% 들어옵니다.

○○○ : 커튼 월등에 보면 반사도를 줄이도록 합니다. 우려가 됩니다.

○○○ : 무광처리를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.

위원장 : 4번 작품 보죠.

○○○ : 가격이 셉니다.

○○○ : 스틸공이 있습니다. 안에 보면 파란색 스틸공이 있습니다. 근데 잘 안보이는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: 아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.

○○○ : 보통 이런 것은 안에 아무것도 안넣습니다.

○○○ : 너무 큽니다. 5미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. 가만히 보면 괜찮은데, 안에 구조물이 있어야 합니다.

○○○ : 가운데 구조적으로 잡아두지 않으면 안전성이 없습니다.

○○○ : 가운데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.

○○○ : 검증하면 좋겠습니다. 작가 이름을 알려주시죠.

○○○ : 많이 사용합니다.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.

○○○ : 5미터라서 문제입니다. 구멍이 얼마나 보일까요.

○○○ : 파이가 25파이입니다.

○○○ : 구조적으로 안에 프레임이 있어야 합니다.

○○○ : 도판으로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. 눈에 거슬리는지 5미터 오브제 안에 구조물이 있으면 다를 겁니다. 구조적으로 보존을 위해서도 프레임이 중요합니다. 실제 공간에서 이 조형물을 볼 때 내부 축이 거슬리거나 불편하지 않을겁니다.

○○○ : 봉파이가 12센티네요.

위원장 : 작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

○○○ : 구조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
위원장 : 프레임이 있어야 합니다. 색깔을 잘 처리하면 괜찮습니다.

○○○ : 통과되면 구조물을 안전성 확보하고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죠. 구조기술사 확인 요망 이렇게 적을까 합니다.

○○○ : 이게 잘못된 그림인거 같습니다. 25파이는 작은겁니다. 2.5센티 구멍이거든요. 그림은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.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.

○○○ : 2.5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. 가산 디지털에도 볼트로 한 작품이 있는데, 사과로 된 작품인데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.

○○○ : 25면 거의 안보입니다.

○○○ : 그림을 잘못 그린거 같습니다.

○○○ : 2.5를 확인해봐야 합니다. 실제 그렇게 할 건지.

위원장 : 나중에 통과되면 옵션을 붙이죠. 5번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작가는 안 바뀌었습니다.

위원장 : 7페이지에 먼저 작품이 있네요.

○○○ : 재질도 다릅니다.

○○○ : 이 작가의 스타일인가요?

○○○ : 반려되었던 작품이군요.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의 예술적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심의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건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. 새로 심의 요청한 작품은 여러 유형의 조각들을 조금씩 모방 변형한 작품으로 보이고, 그 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.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게 문제입니다.

○○○ : 그럼 우리 평가 기준에서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것이니 예술성을 40점으로 하고, 접근성을 낮춰서 예술성에 높은 점수를 줘야하는게 아닌가요. 그러면 작품심의에 작가의 철학을 담을

수 있고, 의미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.

○○○ : 그러나 일단 이 형식은 따라야 합니다.

○○○ : 앞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

○○○ : 공공미술작품은 독창성이 중요하고, 동시에 접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. 대중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점으로 낮추는 것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심의 기준 틀은 나쁘지는 않습니다. 이 작품에 한정해서 볼 때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작품을 통과시킬 건지에 대한 겁니다.

○○○ : 각자 판단하죠.

○○○ : 나쁜 작품은 아닙니다.

○○○ : 먼저 심의한 분들도 아마도 저희 의견에 동감할 겁니다.

○○○ : 재심의 경우에는 전 심의 때 참석한분 중 한분이라도 참여하여 다음 심사의 연속성을 가지면 상황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작가가 처음 심의 넣을 때는 오랜 시간 고민 후에 제출되는데 부결되어 재심 넣을 땐 고민 기간이 짧아 첫번째보다 안좋을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.

○○○ : 세종시의 경우를 보면 먼저 심사했던 사람을 한 두사람 넣어서 히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
○○○ : 왜 떨어졌는지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.

위원장 : 6번 작품입니다.

○○○ : 자료가 무성의합니다. 작품을 설치할 공간과 위치 조건이 변경된 경우인데, 처음 계획안이 계속 나옵니다. 애초 물 위에 설치하기로 한 작품을 지면으로 옮기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, 작품은 물론 작품 설명판의 내용이 전혀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작품 위치는 공간사용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작

가가 그런 부분에서 변경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. 서류미비일 수도 있고, 물리적 이동만 시킨다는 접근법입니다.

○○○ : 접근성이 문제입니다. 아이들 손이 끼일 우려, 오물 투척우려,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. 물에서 땅으로 올라온 것 말고 전혀 변경된 게 없습니다.

○○○ : 문제가 심각합니다. 새로운 작품을 요구할 상황인데도 위치이동만 시키는 겁니다.

위원장 : 5번 작품의 5차 심의내용은 이러네요. 6번도 주시죠.

○○○ : 스테인레스 두께가 약하지 않나요?

○○○ : 2티는 얇지만 괜찮습니다. 3티면 더 좋겠지요

위원장 : 그럼 시간이 가니 먼저 채점하시죠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○ 오늘은 11개 작품 중 2, 4, 5, 6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